

90세 노인이 매일 17km 자전거 타는 까닭



▲ 아내를 보기 위해 매일 17km 거리를 자전거를 타는 90세의 페터 부르크하르트 할아버지. 사진=instagram(de_stentor)

구순의 한 할아버지가 애틋한 부부애를 드러내며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네델란드의 페터 부르크하르트(90)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서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그는 아펠도른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를 보기 위해 매일 약 17km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 벌써 7년째이다.

날씨가 너무 추운 날에는 택시를 타거나 자녀들이 모셔다 드리긴 하지만 그 밖의 대부분의 날에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간다. 눈이 쌓인 날에는 스키복과 모자를 쓰고 집을 나서기도 한다. 그는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젊었을 때 스키를 잘 뒀다. 추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비가 오면 우비를 입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63년간 함께한 아내와 매일 함께 있고 싶다.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며 애틋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또 “가능한 많은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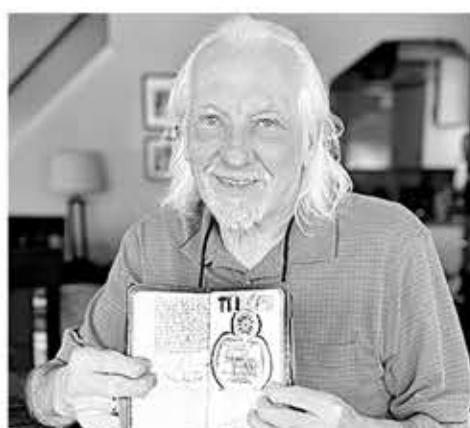
아들인 바우터는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님이 서로 활기를 잃지 않는 듯하다. 아버지의 현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 라며 걱정 반 응원 반의 심경을 밝혔다.

전쟁터에서 주운 일기장 돌려주려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 미군이 당시 습득한 일기장을 돌려주기 위해 56년 만에 베트남 땅을 밟았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7년 11월, 당시 치열했던 닥토 전투에서 살아남은 매튜스는 베트남 병사들이 남긴 소지품을 수거하던 중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아름다운 그림과 글, 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매튜스는 전쟁이 끝난 후 일기장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쟁 기간 내내 일기장을 보관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귀국 후에는 베트남 땅을 다시 찾을 여유가 없었다.

올해 77살인 매튜스는 56년 동안 간직해 온 일기장을 꼭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셜미



▲ 베트남전에서 습득한 일기장을 들어 보이는 매튜스. 사진=vnex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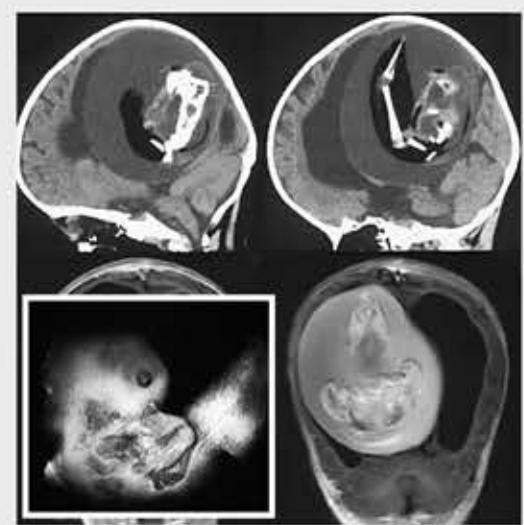
디어에 일기장의 일부 페이지를 옮리며 주인을 찾는다고 알렸다. 일기장에는 하면 성 끼안현의 ‘까오쉬엔 뚜앗’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미국의 한 수집가는 1.200 달러에 일기장을 사겠다고 제의했으며, 한 저널리스트는 출판을 제의했지만 매튜스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다.”면서 모든 제의를 거절했다.

사연을 접한 하띤성 당국은 일기장의 주인 찾기에 나서 그 주인이 까오 반 뚜앗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1942년생인 뚜앗은 1963년 입대해 1967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튜스는 지난 5일 하띤성 끼안현에 도착, 6일 오전 뚜앗의 유족에게 일기장을 돌려주었다.

1세 아이 두개골 안에서 발견된 ‘쌍둥이’



▲ 아이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웅크린 태아 CT 사진. 사진=Neurology

대두증을 앓고 있던 중국 한 살 아이의 두개골 안에서 ‘쌍둥이 태아’가 발견돼 제거됐다.

9일 영국 테일리스타에 따르면 중국 푸단대학병원 의사들은 최근 1세 아이의 두개골 안에서 일란성 쌍둥이의 태아를 제거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아이는 대두증과 운동 능력 상실로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아이의 머리에 종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CT 촬영을 했다.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아이의 두개골 안에 종양 대신 ‘태아’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는 태아 때문에 뇌 일부분에 척수액이 고이는 수두증을 앓고 있었고 태아는 연결된 혈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빠와 팔, 손까지 발달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수술을 통해 태아를 두개골에서 제거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제거된 태아가 분리되지 않은 배반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세포 분열 과정에서 미처 분리되지 않은 부분이 ‘숙주 태아’의 전뇌로 발달했다는 것이다.

의료진은 또 이번 사례가 ‘쌍생아 소실’의 희귀 사례로, 전 세계에서 약 200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밝혔다. 쌍생아 소실은 임신 10~15주 사이에 수태된 쌍둥이 중 하나가 임산부나 다른 쌍둥이에 흡수되어 유산하는 것이다.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목 9am - 6pm**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